| 현불논단 |

꼴찌 위한 불교 만들자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학업부터 취업까지 경쟁 만연한
'학력 만능주의' 빠진 한국사회
자녀를 키우고 학생 가르쳐보니
"공부 못해도 똑똑해요" 실감해
꼴찌라도 현명한 학생들이 많아

'학력 만능주의' 이제 걷어내고
韓불교부터 꼴찌들을 품어보자
학력서 벗어나고픈 청년들 모아
본인 가능성 확인 기회 제공을

세상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못해 극과 극을 달리는 이들이 서로 태연하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 세상인 듯도 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 줄에 세우는 버릇이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취업까지 모두 한 줄로만 세운다.

늘어세운 한 줄에서 일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꼴찌를 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일등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내 자식이 그 줄에서 앞 등수를 차지하는 장한 인재이기를 응원한다.

그런데 일등이 있는데 꼴찌가 없겠는가? 일등이 있으려면 반드시 꼴찌가 필요한 법이다. 고백하건데, 나는 수학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한다.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 굶어죽어도 백번은 굶어 죽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여곡절 헤매다가 보니, 중간보다 조금 등수가 나은 곳도 있어서 겨우 밥은 먹고 살아간다.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어렸을 때는 절대 안 믿었던 말을 믿게 되었다. "우리 아들이 공부는 못해도 똑똑해요."

예전에는 이 말을 못 믿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믿게 되었다. 공부는 못해도 똑똑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믿게 되었다. 똑똑한 데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한참이나 후에 깨닫게 되었다. 이 말에 수긍하는 사람이 아마도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 젊은이들을 학력이라는 하나의 줄에서 앞머리에 세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 꼴찌를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셈이다. 묻고 싶다. 왜 똑똑한 자식을 잘하는데서 일등 만들지 않고 굳이 꼴찌가 되는 줄에 세우는지?

학력 만능의 사회는 이제 그만 두자. 부모들도 자식들도, 학력 일등이 사회 일등이 되는 것이 아닌 줄을 뻔히 안다. 그러면서도 그 줄의 앞에 세우고 싶은 것은 내 자식이 좀더 쉽게, 고생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렸으면 해서일 것이다. 마음은 알지만, 부모도 자식도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불교라도, 우리 불교라도 꼴찌들을 위한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꼴찌를 모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학력이라는 한 줄에서 벗어나고 싶은 젊은이들을 위한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리곤 했던 주리반타카도 부처님의 일깨움에 따라서 청소만 하다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않았던가?

단 하나의 줄만 세우는 학력사회에서 학력으로 일등 못하는 젊은이를 탓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학력으로는 일등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아서 일등인 곳을 찾아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2600년 동안 불교는 일등이 아닌 꼴찌들을 위해 정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왔다.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일깨워왔고, 조사스님들이 제자를 일깨웠던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불교 전등(傳燈)의 역사가 오롯하게 줄탁동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 꼴찌를 일등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를 재생산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혹시 우리는 그 경험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어서 수많은 꼴찌들을 위해 제공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꼭 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 꼴찌라고 착각하고 한숨 내쉬기 바쁜 젊은이들에게 멍 때릴 수 있는 공간부터 제공해보자. 멍 때리기 좋은 공간이 우리 불교에는 정말 많다. 공부는 꼴찌라도 똑똑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멍 때리기 좋은 곳, 그런 쉼터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우리 불교가 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社 說

열암곡 마애불 入佛, 국민과 함께 하자

지난 10월 5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를 국민에게 제안했다. 진우 스님의 제안 이후 마애불 입불(入佛)에 대한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그간 현상 유지를 통한 보존 · 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진우 스님의 대국민 제안 이후에는 마애불 입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경북도 소재 5개 본사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불사를 '대국민 원력불사'로 만들겠다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2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의 슬로건으로 '천년을 세우다'를 제안하고 국민 성금 모연 등을 통해 대국민적인 불사로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고 한다.

경주 남산에는 약 120여 구의 불상이 계곡 곳곳에 산재돼 있다. 일부는 사찰에 봉안돼 있기도 하고, 어떤 불상은 노천에서 경주 일원을 굽어본다. 신라의 민중들이 남산에 수많은 불상을 세운 것은 그들의 수도 서라벌이 불국토이기를 바란 지극한 신심으로 발원이다. 천재지변으로 넘어진 부처님을 세우는 것은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아름다운 민족의 문화 자산을 천년이 넘도록 넘어진 채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조가 세운 부처님을 다시 일으키는 것,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18대 중앙종회, 제도적 발전 이끌길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최종 확정됐다. 새롭게 구성된 18대 중앙종회는 11월 9일 출범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종단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로서, 종무행정 및 종단 운영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37대 집행부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불교중흥 원력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한 제도적 정비 등 향후 입법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부터 종단 현실에 맞는 종법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무엇보다 이번 중앙종회는 그 어떤 종회보다 화합의 기틀을 갖췄다. 직선직 의원을 선출하는 교구본사 24곳 가운데 19곳이 선거절차 없이 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경선을 통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화합을 우선하는 종단 분위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이후 여러 논란과 후유증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화합으로 선거 없이 당선된 종회의원들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화합으로 출발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교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중앙종회 또한 이에 발 맞춰 구시대적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은 물론, 종단 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격렬한 논쟁과 대립도 발전을 향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제18대 중앙종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종단 발전의 새 전기를 만들어가길 발원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적멸의 시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옛사람들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불렀다. 추석 차례를 지내고, 오곡백과를 거둬들여 곳간에 식량이 그득하게 쌓여 있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마저 높고 푸르러 일 년 중 으뜸가는 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10월이면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늘에 제(祭)나 고사(告祀)를 지냈다.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이다.

그런데 남들과 달리 곳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계절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버렸나?'라는 회의에 빠져들게 된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고 세월을 한탄한다. 일주일이야, 눈 깜박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고 탄식한다.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안 간다. 자기 생일이 며칠 남았다 하면 그날들은 한없이 길다. 어린아이에게 시간은 더디 흘러간다. 어쩌면 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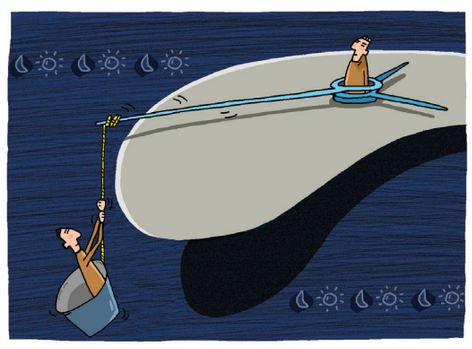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흘러가지 않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일까?

시간에는 흐르는 시간과 흐르지 않는 시간이 있다. 흐르는 시간은 생멸(生滅)의 시간이고, 흐르지 않는 시간은 적멸(寂滅)의 시간이라고 한다. 생멸이란 유한의 세계이고, 적멸이란 무한의 세계이다. 생멸의 시간에는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적멸의 시간에는 죽음이 끼어들 수 없다. 시간이 없어지는 세계, 삶과 죽음이 없는 무의 세계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시간은 휙 지나가고 만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하면 일 년이,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의상 대사는 '법성게(法性偈)'에서 찰나가 무량겁이요, 과거 · 현재 · 미래가 찰나 속에 깃든다고 했다.(一念卽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卽) 무량겁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일컫는다. 영원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멈춰 살아 있는 지금, 찰나의 시간이다. 삼매(三昧)에 빠져들면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로 머물게 된다. 현재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의 우주선은 빛의 속도가 되어야 한다. 의식의 흐름을 가속화해서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은 휘어진다. 생각이 무념(無念)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바로 부처의 광휘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생멸의 시간은 끊어지고, 적멸의 시간이 상달의 밝은 달처럼 교교하게 펼쳐지리라.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방송포교 27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BTN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으로
누구나 동참가능합니다.
BTN 붓다회 BUDDHACLUB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